

“코로나 국난 위기 극복해 민생 안정시켜달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본 설 민심

문 정부 성공·민주당 기대 여전

사법개혁·언론개혁 마무리 요구

인구감소 등 농어촌 문제 해결 시급

AI, 무조건 살처분 정책 재고해달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안정’이었다. 코로나 19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고, 코로나 19의 빠른 극복과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민이 많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거 명절때면 전통시장 등지를 돌며 지역 여론을 경청하고, 대규모 정치 행사를 하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탓에 이번 설 연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전했다.

14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최대한 접촉을 자제한 지역민들은 어려운 서민경제 극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영덕(동남갑·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탓에 공공장소에서 공식 행사를 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이다.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예전처럼 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지난해 보다는 좀 더 위안이 된다는 말과 함께 백신 접종을 빨리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용빈(광산구갑) 의원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컸다”며 “사법 개혁, 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코로나 국난 위기를 잘 극복해 경제회복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검찰 개혁 등을 완성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형석(북구을) 의원은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남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비슷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 문제 극복에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컸다.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어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데 이들의 숙소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며 “또한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정부가 살처분만 하지 말고 사전 대책이나 추후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100년을 내다보고 공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태양광 등으로 농지가 축소되고 자연훼손 심하고 지역 간 갈등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제주 용품이 비싸다고 하는데 일부 농산물은 거리가 먼 내용인데도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열악한 출생률과 보육 교육 의료 문제 해결 없이는 인구와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듣기 어려운 정도로 대면이 쉽지 않았다”며 아직 1년 뒤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수소차 허브도시 출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빛고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한반도·개각...문 대통령 설 연휴 정국 구상 결론은?

백신 접종·4차 지원금 등 점검

총리·경제팀 교체 이뤄질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청와대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전통시장 방문과 이튿날 국민과의 영상통화 등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일정을 최소화한 채 관저에 머무르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상황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코로나 상황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한 민생 회복 방안도 문 대통령이 고심했을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난 지원금 관련 당·정의 이견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선 우선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하고, 이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시나리오가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바이든 미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 관저에서 축구 국가대표 지소연 선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구상도 점검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미 공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방점을 찍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측과의 대화를 재개해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진용을 짜는 개각 구상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르면 3월 말, 또는 4·7 재보선 직후 총리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총리 교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속도낸다

조선대병원에...2024년 개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광주지역 감염병 전문 의료시설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면서 감염병 환자 치료, 의료 대응 총지휘, 인력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 들어서며 지상 2층·지상 5층, 98병상 규모다.

평상시에는 국가 지정 58병상을 운영하며, 감염병 위기 시에는 중증 환자 전담 36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414억원, 시비 32억원 등 446억원이며 정부와 협업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공모와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기본

·설치설계 중이다. 오는 11월 착공해 2023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2024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개원할 예정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국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추진됐으나, 예산, 부지 등의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7년 8월 정부 공모에 선정된 광주시도 당초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적정성 검토, 부지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고, 호남권(조선대병원), 중앙권(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권(양산 부산대병원)이 지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러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 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망치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